

유탈소식

—동자부·환경처·석유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각각 입법예고—

동자부와 환경처는 석유사업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연료유의 가격자율화·주유소의 거리철폐에 대한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폐기물처리 예치금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점들이 정부·업계간 큰쟁점으로 되어 있다.

—환경처·폐기물처리예치제에 관한 공청회 개최—

환경처는 7월1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뒤 7월30일 국립환경연구소 대강당에서 폐기물처리예치제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해관계있는 단체·기업체관계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공청회에서 윤서성 폐기물관리국장과 박준우 교수(한국환경경제학회)의 주제발표에 이어 Global 500 박노경 한국위원장외 좌장으로 10명의 찬반토론과 관계단체·기업체에서의 발언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환경처는 유탈유를 비롯한 용기류 전지·타이어·자동차·가전제품·합성수지등 7개품목에 대하여 예치금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치금제는 일정금액을 제

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정부에 예치해두고 해당 폐기물을 회수 처리한 실적만큼의 비율을 예치금중에서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환경기금으로 국고화하는 제도인바 회수·처리실적을 높이고 기금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제도를 실시하고자하는 환경처의 의도다.

현대 금번 입법예고된바에 따르면 예치율이 터무니없이 높고 초년도 부터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목표설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각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탈유업계 또한 l 당 50원의 높은 예치단가와 20%미만의 회수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공업진흥청·유압작동유 KS 규격 개정—

유압작동유(KSM2129)의 KS 규격이 8월2일 공업진흥청 고시 제91-973호로 개정 고시되었다.

수분 측정방법이 카알피셔법으로 개정된 이번 KS규격에 따라 기존허가업체들은 관련 사양을 개정하고 3개월내에 이규격에 따라 생산 그 결과를 공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유공·독일혹스사와 합작(주)유공혹스 설립—

(주)유공은 지난 4월9일 독일의 저명한 특수유탈유 메이커인 FUCHS PETROLUB AG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제조회사인 (주)유공혹스를

설립하였다. (주)유공혹스는 중금속 특히 발암물질인 페놀·염소분등의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oil mist량이 기존 제품보다 90%가량 줄어 작업성이 향상되며 증발량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는 최첨단 제품을 국내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금번 (주)유공혹스사의 설립으로 금속가공유의 품질고급화로 국내기계 및 금속가공제품의 수출경쟁력제고에도 큰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주)유공의 안명주 부사장이 겸임한다.

—한일유탈유(주) 판매업으로 전업—

한일유탈유(주)(대표이사·이선종)은 그간 영위하여 오던 유탈유정제업에서 손을 떼고 유탈유판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목적을 8월2일자로 변경하였다.

한일유탈유(주)는 1970년 부산에서 김영보사장이 창업한 이래 본사를 부산에서 서울로, 공장을 부산 감천동에서 온산으로 이전하고 자동차용 내연기관용 유탈유를 비롯하여 공업용과 금속가공유에 이르기까지 전유종을 생산 판매하여 왔었다.

—경인에너지(주)·KS표시허가 추가획득—

경인에너지(주)(대표이사·성락정) 인천공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공진청장으로부터 다음과

윤활소식

같이 KS표시허가를 획득하였다.

획득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등급 또는 호칭
제7978호	KSM2121	내연기관용 윤활유	선박용3중4중

—(주)영일·윤활유 KS협회가가입—

(주)영일(경북포항소재·대표이사 김영희)은 지난 7월15일자로 윤활유 KS협의회에 신규가입하였다. 동사는 '91년 6월17일 절삭유제 및 유압작동유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 표시허가를 획득한바 있다.